

# 작은 꽃

## 주요 날짜:

- 12 월 3 일  
대림 시기 시작  
Soup Kitchen 봉사
- 12 월 8 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임태 대축일
- 12 월 10 일  
성경모임
- 12 월 17 일  
월례회/성탄 party
- 12 월 25 일  
예수 성탄 대축일
- 12 월 31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다음쪽:

성경모임

이달의 작은 사람



##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강 성호 도미니코 부제

사람에게는 정서생활이 필요합니다. 정을 주고 받는 것은 좋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부부사랑, 부모자식 간의 사랑, 우정 얹힌 친구들과의 교제 역시 인간의 정상적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심은 영원한 사랑을 찾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요. 사람은 죽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느님 만이 우리의 최종적 사랑의 상대가 아님니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느님은 별로 엄포하시는 무서운 신이 아니고 자애 깊은 사랑의 신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살자면 절제의 생활이 필요한 데, 아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면 육체의 낙은 적지만 영혼의 낙과 유익은 클 것 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외부행사에서나 내적 자유를 유지하고 우리가 주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이 우리 아래 따르게 하고 사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요. 왼쪽 눈으로 지나가는 사물을 보고 바른쪽 눈으로 천상의 것을 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장막 안에 들어가 하느님께 여쭙어 보면, 하느님의 답을 들을 것이고 현세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가끔 네게 말했지만 다시 반복한다. 너를 떠나라. 너를 끊어 버려라. 그러면 네 안에 큰 평화가 올 것이다. 깨끗하고 굳은 신념으로 내 앞에 서 있으면 너는 나를 차지하리라. 그러면 너는 네 마음이 자유스러워짐을 느낄 것이고 암흑이 너를 엄습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너도 자신에게는 죽고, 내게 영원히 살도록 하라. 그러면 모든 잡념이 없어질 것이고, 좋지 못한 번민이나 필

요 없는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절조 없는 사랑도 죽어 사라질 것이다.’  
[준주성범에서]

### 피정을 다녀와서

피정이란 단어가 낯설기만 했던 적을 생각하며, 이번 피정에 참석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면서 아름다운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적어 보고 싶었다. 좀 산만하지만 왠지 고향 같이 느껴지는 꽃동네에서 하루를 묵으며 주님과 함께라는 생각에 저쪽에서 거니는 수녀님들이 천사 같아 보였다. 이곳은 아직 꽃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손길들의 돌보심이 있어 큰 열매가 있길 바란다.

밤이 되어 자매들과 같이 하여보니 다 보석같은 분들이다. 잘 웃지 않을 것 같은 율리아나자매의 재치있는 말솜씨로 함박웃음이 터졌고, 부드러운 음성의 요안나자매는 따뜻함과 다정 그 자체였다. 사베리아자매의 조용하고 포근한 음성, 남편에 대한 순종과 존경과 배려, 남편을 보는 눈빛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젊은 부부지만 깍듯이 부인을 존중하는 요한 형제가 “이 피정에 처와 함께 온 것이 감사하다”고 했을 때 로사 자매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성무일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챙겨주신 세레나자매, 지금도 세레나씨의 양성반에서 공부할 때가 생각나면 마음이 설렌다.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도 늘 기다려지던 시간, 가기만 하면 마음이 설레었고 기뻐했던 시간이었다. 그렇다,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부드럽고 고운 음성, 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 이튿날 데니스 신부님의 관상기도 시간에 우리 부부는 연못가 성모님의 발아래서 갈대 속의 푸득이는 새들과 한가로이 물을 가르는 오리들과 함께 자연 속에 빠져들었다.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하다면... 아침 저녁 시멘트 건물 속에

##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an  
@yahoo.com

## 이달의 작은 사람



서 소리없는 아우성을 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주님께서서는 광야와 들과 산과 호숫가에서 전도여행을 하셨으니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알기 쉽게 깨우쳐 주셨으리라 생각됐다. 해박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의 선비같은 바오로씨는 선조들의 피와 신의와 용기와 죽어도 믿을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의 뜨거움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일깨워 주셨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바람’이신 하느님에 관한 말씀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디서나 맛보고 느끼고 스치는 내면의 세계로 이끈 바오로씨의 소리없는 고함소리는 아직도 내 귀에 맴돌며,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오래된 토담성당에서의 만남이 미셀자매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가냘픈 음성에 슬픔이 서려보이나 어디서나 찾을 것 같은 그 선한 얼굴, 한 동안 그의 정성과 희생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님의 손길 안에서 머물게 하였다고 믿는다. 철없이 버릇없이 구겨진 이민길의 우리 가족에게 섬김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사랑을 퍼주신 형제자매님께 사랑의 박수를 드린다. 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분들과 지낸 여정이 머리를 스칠 때 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어디서 읽은 이야기이다. 어느 고장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작던 크던 돈이 생기면 주막집을 가는 아버지의 ‘술’버릇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번 성탄에 어린 아들에게 꼭 선물을 주고 싶어 꼬깃꼬깃 접은 얼마되지 않는 돈을 남편에게 주며 아들의 선물을 사오라고 했다. 길을 나선 그의 눈에 주막이 들어왔다. 발길을 멈추고 망서리다, 부인의 간절한 모습과 아들을 떠올라 발길을 재촉했다. 눈이 하얗게 쌓이기 시작하였다. 간절한 술생각에 뒤를 돌아본 그는 깜짝 놀랐다. 어린 아들이

오 정은 율리아나 자매님을 마지막으로 2004년 9월부터 연재되어온 이달의 작은 사람을 마감합니다. 성녀 율리아나 팔코네리아(축일6월19일)가 본명성인이신 자매님은 대학 2학년 때 미팅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짝지어진 동급생 바오로 형제님과 오직 ‘一片單心’으로 교제하여 1971년 결혼, 일남일녀를 두고 계십니다. 천주교 집안 출신 남편의 아무런 권유나 압력도 없이 스스로 1978년 서교동 양화진 성당에서 영세 받으셨습니다. 1986년 바오로 형제님의 직장 관계로 아르헨티나로 가시게 되었고, 먼길을 돌아 1991년 도미하여 2000년에 San Diego로 이사오셨습니다. 성당구역 모임에서 주미셀 자매를 만나면서 시작된 형제회와의 인연은 바쁜 사업 운영 상 바오로 형제님만 먼저 형제회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역시 남편의 특별한 영향 없이 사업이 자리 잡혀감에 따라 스스로 형제회 생활을 결정하여 지난 6월 입회하셨습니다. 형제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뻐 보이기 시작하신다면서 손꼽아 월례회 오는 날만 기다리다 이제는 4년전 L.A.로 이사하신 후 홀로 멀리서 월례회에 참석하시던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 매달 형제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버지의 발자국을 요리 강충 저리 강충 뚫듯 밟으며 따라오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성모님의 아름다움에 깊이 잠겨 본다. [기 루피나]

## 성경모임 - 이사야 1 부篇



모범생?

대 예언서라고 불리며 ‘야훼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의 이야기이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느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14,24)라고 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유다의 왕은 인간적 지혜를 선택함으로써 나라를 멸망으로 끌어넣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하느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인들은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하시며 세상을 ‘공정과 정의’(28,10)로 다스릴 것이라 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는 히즈키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평화와 안정을 약속하셨다.

닥쳐진 어려움을 인간적 지혜로써 극복하려는 유다의 왕의 모습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내 자신의 모습임을 알기에 마음이 무겁다. [전 세레나 정리]